

# 마크 제닝스 박사, 마크, 강의 18, 마가복음 11:12-12:12, 성전 저주, 무화과나무, 소작인

© 2024 Mark Jennings 및 Ted Hildebrandt

마가복음에 대한 그의 가르침을 전하는 마크 제닝스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18, 마가복음 11:12-12:12, 성전 저주, 무화과나무, 소작인입니다.

안녕하세요, 마가복음을 계속 연구하면서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방금 11장의 첫 부분을 예루살렘으로의 승리의 입성으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시겠지만, 그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하신 첫 번째 일은 성전으로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는 매우 차분한 진술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주변을 둘러보셨고, 우리는 거기서 사용된 동사, 그 특정 동사가 그리스어 신약에서 단 7번만 사용되었다는 것을 논의했습니다. 그 7번 중 6번은 마가복음에 있으며, 단순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고려하고 평가한다는 생각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약간 불길한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12절에서 25절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얻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보게 될 것은 보통 성전을 정화하는 일화인데, 저는 그 제목을 조금 다시 생각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이 예수께서 이미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살펴보신 다음 돌아오신 것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이제 12절에서 25절을 살펴보면, 성전에서 예수가 행한 일화와 기적 이야기, 무화과나무 저주, 기도에 대한 몇 가지 논평이 끼어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여기서 매우 흥미로운 상호 작용이 일어납니다. 이

무화과나무, 예루살렘 성전, 무화과나무. 제가 우리가 추적하고 싶은 것 중 하나는 그것들이 어떻게 함께 작용하는지입니다.

사실, 이 전체 과정에서 우리가 보게 될 것은 예수께서 성전과 성전 지도부에 관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번 주 대부분에 일어날 일의 무대를 마련할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와 종교 지도자들, 성전 설립자들 사이의 도전이며, 많은 면에서 성전을 중심으로 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주요 구절 중 하나는 물론 17절입니다.

우리는 11장 17절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께서는 이사야 56장과 예레미야 7장이라는 두 구약성경 본문을 결합하여 전체 구절을 정말 강조합니다. 다시 말해, 이 구절에는 다룰 내용이 많습니다 .

이제, 흥미롭게도, 대부분의 학문적 연구는 물론 성전에서의 예수의 행동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많은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하지만 이 무화과나무 에피소드에 대한 논란은 적지 않습니다. 특히 그것을 살펴보면, 그것은 예수를 매우 불리한 빛으로 비추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일종의 자연적 기적을 보는데, 그것은 예수께서 분노로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것처럼 보이고, 예수께서 이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았기 때문에 보복적으로 보인 것처럼 보이는 것인데, 비록 그것이 일어날 계절이 아닌 것 같았지만요. 적어도, 그것이 본문을 읽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가 아침을 먹지 않았을 때의 모습과 그가 이 힘을 사용하는 방식과 같은 투덜거리는 예수입니다. 이상한 그림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진행하면서, 무화과 이야기를 고려하면서, 마가복음에서 이 무화과 이야기가 예루살렘 성전 단지 이야기의 일부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우리가 마가복음의 구조에서 본 방식으로 상호 해석적입니다. 사실, 예수님도 그렇게 의도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것을 해보겠습니다.

11장의 12-14절을 살펴보고, 그 구절과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고, 어쩌면 일어나지 않을지도 모르는 일에 대해 논평해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 그것을 토론의 발판으로 삼겠습니다. 12절, 그들이 베다니에서 온 다음 날, 그는 배고프셨고 멀리서 잎이 무화과나무를 보았습니다. 그는 그 나무에 무엇이 있는지 보려고 갔습니다.

그가 거기에 도착했을 때, 그는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무화과철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아무도 다시는 당신에게서 열매를 먹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의 제자들은 그것을 들었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는 배고프셨습니다. 그는 잎사귀에서 무화과나무를 보고 먹을 것을 찾으러 가셨고, 제자들이 들을 수 있는 거리에 계셨습니다. 중요한 요점입니다. 저는 그 요점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는 무화과를 저주하셨습니다.

이 자연의 기적은, 이것은 우리가 보통 보아온 것의 어두운 사촌과 정반대입니다. 보통 예수께서 하시는 일은 수가 적은 것을 취하여 많은 양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는 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생산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려면 농업적 맥락이 조금 필요합니다. 8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 무화과 수확 후 무화과 나무와 가지에서 새싹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 이 새싹은 겨울 동안 자라다가 3월과 4월에 이 푸른 새싹으로 부풀어 오르고, 곧 잎이 있는 새싹이 뒤따릅니다. 다시 말해, 무화과나무는 종종 잎을 내기 전에 새싹을 보여줍니다. 이제 무화과나무에

잎이 나면, 잎으로 변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모든 종류의 푸른 새싹이 가득한 가지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새싹들은 당신이 원한다면 다양한 성숙 상태에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아직 완전히 무화과가 되지 않았지만 어떤 종류의 과정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새싹들은 먹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은 보통 봄에 일어나는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시기와 거의 같습니다. 이 새싹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거기에 가셨을 때 푸른 잎과 잎사귀를 보고 먹을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그 새싹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진술은 무화과철이 아니었기 때문에, 당신이 원한다면 불쌍한 무화과나무를 변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무화과나무가 먹을 것을 아무것도 생산하지 못해서 저주를 받았지만, 그것은 제철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니다.

하지만 무화과철이 아니었지만, 아직 잎이 무성했기 때문에, 아직 완전한 열매는 아니더라도 먹을 수 있는 새싹을 낼 수 있는 위치에 있었어야 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요소의 핵심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잎이 무성한 것을 보고 거기에 가셨고, 따라서 그분이 먹을 것이 거기에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무화과로 자랄 새싹 말입니다.

하지만 그는 또한 제자들이 들을 수 있는 곳에서 이것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마가가 우리에게 이것을 말하는 이유는 예수께서 하려는 일이 제자들을 위한 것이고, 제자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만 목격한 특정 기적들이 있었고, 이것이 여러 면에서 그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그가 성전으로 이사할 때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무대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무화과나무로 여기서 하고 있다고

믿는 것은, 먹을 수 있는 새싹이 있어야 한다는 모든 징후를 보여주는 이 무화과나무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거기에 도착하여 새싹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 저주는 시각적인 표현, 비유, 말하자면 예언적 그림이 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종종 그들의 메시지와 함께 시각적인 표시를 하던 방식으로, 이 무화과나무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하실 일에 대한 예언적 그림이 됩니다. 사실, 선지자들은 종종 무화과나무를 심판과 관련된 상징으로 사용합니다.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백성과 관련이 있으며, 심판의 관점에서 보면 이사야 34장, 예레미야 29장, 호세아 2장, 호세아 9장, 요엘 1장, 미가 7장, 특히 예레미야 8 장 13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예레미야 8장 13절은 우리가 곧 살펴볼 예레미야의 이 구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 8:13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활동, 태도, 자세, 불순종, 성전에서의 활동을 포함하여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는 심판 언어의 일부로, 나무에 무화과가 없고 잎이 시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진술입니다. 그래서 저는 잎이 무성한 나무가 상징이고,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가 성전의 상징이며, 겉모습은 건강하지만 참된 열매는 맺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무화과나무에 대한 예수님의 행동은 성전에 대한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우리에게 고려하라고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저주하시는 만큼 성전을 정화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성전에 오셨을 때, 그것을 정화라고 부르는 것은 약간 잘못된 명칭입니다. 왜냐하면 정화는 정화하고 바로잡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 무화과나무가 우리에게 고려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예수께서 개혁하거나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저주하시고, 그 활동이 끝났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왔습니다. 이것은 15절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왔고, 그는 성전을 끝내시고, 성전에서 파는 자와 사는 자를 몰아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는 환전상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뒤집어엎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무도 성전을 통과하여 아무것도 운반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가르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모든 민족을 위한 기도의 집이라 불릴 것이니라”고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냐? 그러나 너희는 그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것을 듣고 그를 멸할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온 무리 때문에 그를 두려워했고 그의 가르침에 놀랐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에 나머지 부분으로 돌아가겠지만, 저는 거기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예수께서 여기서 네 가지 특정한 행동을 하시는 것을 주목하세요.

그는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을 내쫓고, 환전상을 뒤집어엎고, 비둘기 파는 사람의 의자를 뒤집어엎고, 성전 그릇을 옮기는 것을 막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들이 들어왔을 때, 여기서 찾아보겠습니다, 오, 저기 있습니다. 그는 성전에 들어가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을 내쫓고, 환전상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의 의자를 뒤집어엎고, 그들이 성전을 통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15, 16절). 저는 우리가 이 네 가지 사항과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적어도 성전이 일어나는 장소에서 성전의 활동을 중단시키는 실질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전 운영 전체에 대한 관점에서는 아닙니다. 성전은 너무 커서 그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선, 예수께서 단순히 탐욕에 대응하고 있다는 생각, 그리고 이것은 성전의 금전적 남용에 대한 성명이라는 생각은 종종 논의되지만, 저는 그것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의 본질적인 요소를 놓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일부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그분은 구매자와 판매자들을 추방합니다.

이제, 그들이 단순히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람들이었다면, 우리는 그분이 구매자, 즉 판매자, 실례합니다, 판매자들을 추방하셨을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구매자와 판매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전에서 희생 제사 활동에 필요한 동물을 사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동물을 사고 파는 일이 없다면 성전의 희생 제사적 종교적 측면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흠 없는 희생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리고 종종 순례자들은 동물을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동물이 길에서 흠이 있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아는 데는 이런 안전함이 있었습니다. 더 나은 용어가 없어서 흠 없는 희생으로 승인되고 승인될 것입니다. 그래서 동물의 사고 파는 것을 막는 것은 여러 면에서 희생 과정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것이었습니다. 흥미롭게도 누가는 구매자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누가는 성전에서 상인들을 언급할 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누가가 강조하는 것과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예수가 소외된 사람들과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해 서 있다는 점에서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탐욕스러운 관행이 없다고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마가가 전달하는 것은 상인들도 포함된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또한 환전업자를 전복시켰습니다. 이제 환전업자가 필요했습니다. 성전에 기부금을 보내려면 성전 세금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 환전업자들은 반 세켈 세금을 내는 데 필요한 돈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금은 모든 유대인 남성에게 매년 요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실제로 출애굽기 30장 16절의 해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리고 환전상들이 한 일은 순례자들에게 성전세를 올바른 동전으로 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에게 봉사한 것입니다. 그 시스템에 탐욕이

있었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큼니다. 제 말은, 당시의 지도부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바를 감안할 때, 그렇지 않았다면 놀랍겠습니다.

우리가 인간에 대해 아는 바를 감안하면, 그렇지 않다면 놀랍겠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돈을 바꾸는 과정 자체가 활동에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는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을 넘겼습니다.

비둘기는 가난한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 제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기서 환전상을 뒤집고,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을 내쫓고, 비둘기를 뒤집었는데, 그가 가난한 사람들을 옹호하고 있었을 뿐이라면, 그가 실제로 그들이 살 물건을 뒤집는다는 것은 흥미로운 일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성전을 통과할 때 아무도 아무것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이 진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전을 통해 그릇을 나르는 사람은 특정 사람뿐만 아니라 무엇이든 나르는 모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저는 그가 성전의 모든 활동에 참여하고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안다고 가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말은, 그는 아마도 일부에 관여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희생제물 구매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는 성전 세금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모든 활동을 멈추고, 사람들이 그 지역을 오고 가는 것을 막고, 그들이 물건을 나르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는 본질적으로 성전의 활동에 예언적 중단, 상징적 중단을 두고 있습니다. 성전이 관여했던 모든 것, 희생, 세금, 오고 가는 것, 성전 활동이었던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가 성전에 상징적인 종말을 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이유는, 17절에, 내 집은 모든 민족을 위한 기도의 집이라 불리리라 기록되어 있지 않은가, 그러나 너희는 그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 진술의 첫 부분은 이사야 56장 7절에서 나왔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예레미야 7장 11절에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첫 번째 부분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이 두 구절 때문에 그는 이 두 구절을 취하고 함께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는 성전에서 본 것이 성전의 목적에 어긋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6장 7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려는 내용에 대해 매우 심오한 권위를 지닌 입장을 취하시는 것을 저는 흥미롭게 생각합니다.

이사야 56장 7절을 보면 주님의 집이지만, 여기서는 내 집이 시야에 들어옵니다. 성전은 내 집입니다. 마치 예수께서 집 주인을 대신하여 주인의 입장을 취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사야 56장 7절도 희생 행위에 대해 논하지 않습니다. 이 구절은 희생 행위에 대한 탐욕이 문제였다면, 그것은 순수하고 유일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선택하신 매우 이상한 구절입니다. 구약성경에는 희생을 언급하는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희생의 적절한 장소, 희생의 잘못된 장소, 희생의 올바른 태도 등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 집은 모든 민족을 위한 기도의 집이라 불릴 것이다. 매우 강력한 종말론적 추진력을 지닌 이사야 56장은 구원을 바라보고 있다. 예수께서 이 첫 번째 진술에서 하시는 일은, 내 생각에, 성전의 목적이 하나님과 모든 사람 사이의 교제 중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선언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만 모든 민족에 대한 완전한 진술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이 사건이 있지만, 그들은 내 집이 기도의 집이라 불릴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그들은 모든 민족보다 먼저 끝냅니다.

이제 마가복음은 그것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마가복음, 이방인 선교,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예수의 목적에 대해 우리가 본 중요한 것에 대해 계속해서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판 중 하나는 성전에 대한 심판인데, 그들은 이방인들이 여기서 일어나는 일의 일부가 되는 것을 배제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가 이 활동을 했을 수 있는 곳이 실제로 이방인을 위해 지정된 지역이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이방인을 위한 구역이 있었고, 여성을 위한 구역이 있었고, 유대인 남성을 위한 구역이 있었습니다. 이방인이 와서 경의를 표하고 예배하고 성전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할 이 구역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이방인 출신이지만 하나님을 긍정하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를 위한 구역이 바로 이 시장 거래가 되었고, 그래서 그것 역시 그 일부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리고 우리는 잠시 후에 이 문제로 돌아올 것입니다. 성전은 기도의 목적,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내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시 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예레미야와 합쳤지만, 여러분은 그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것이 종종 잘못 해석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이 강도가 일어나는 장소로 만들었다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강도가 일어나는 장소는 상점이나 집일 것입니다.

그러면 강도들은 강도질을 하고 그들의 굴로 돌아온다. 그들의 굴은 강도가 일어나는 곳이 아니다. 그들의 굴은 그들의 은신처다.

그래서 예수께서 여기서 언급하시는 것은 이 장소가 기도, 예배로 특징지어지는 대신, 장소를 특징짓는 것은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장소가 진정으로 신을 찾는 사람들의 집단으로 특징지어지는 대신, 강도들이 거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그것이 약간 바뀝니다.

그것은 청소에서 강도가 여기서 일어나고 있다는 생각에서 그 활동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당신이 그것을 사기꾼의 은신처로 만들었다는 생각으로 바꿉니다. 이곳을 특징짓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글쎄요, 강도질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레미야의 맥락을 살펴보면, 예레미야의 연설에서 그는 성전의 파괴를 담대하게 위협하고, 예레미야는 실제로 성전 한가운데에서 이를 알립니다.

그는 그것 때문에 체포되어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그의 목숨은 살았습니다. 우리는 예레미야서에서 이런 꾸지람을 듣습니다. 흥미롭게도, 성전에 대한 이 꾸지람에는 심판의 8장에서 언급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고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으며 잎이 시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악한 농부의 비유에 대한 심판의 연설과 이 전체 본문에서 무화과나무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강도라는 용어도 단순한 도둑이라기보다는 산적이라는 개념, 폭력적인 범죄자, 반항하는 사람이라는 개념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께서 이 두 가지 진술을 섞으셨을 때, 실제로는 이 무리가 경배하는 사람인 척하지만 사실은 산적과 같고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의 목적에 반대하는 사람들과 더 비슷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일이 예레미야와 구약의 선지자들과 비슷한 심판의 진술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는 사용하고 있으며, 무화과나무 저주는 그 이해의 일부입니다. 예레미야 7장을 보면 흥미롭습니다. 예레미야 7장은 실제로 사해 두루마리에서 심판의 언어가 오는 것으로 이해되는 구절의 일부로 선택됩니다. 요세푸스는 예레미야 7장이 성전의 파괴를 예상하는 이러한 기간 중 일부에서 사용된 다양한 움직임에 언급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의 타르굼, 예레미야 7 구절은 또한 말로 속이는 사람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거짓으로 가장하는 사람들의 집단 안에

위치시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7을 심판의 진술로 위치시키는 역사가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도 그렇게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셨고, 18절은 예수께서 성전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예언적으로 성전의 활동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는 이것이 기도의 집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가 도둑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예레미야의 맥락에서 보면, 이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올바른 반응인 심판은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그 이야기의 계속일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대제사장들이 그가 하는 말을 모은다고 생각합니다. 18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것을 듣고 그를 멸할 방법을 찾았다고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를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온 무리가 그의 가르침에 놀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들의 반응은, 우리는 이제 거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죽이려는 종교 지도자들의 거부의 더 완전한 완성, 우리는 그들이 해왔고 하려고 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지금은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이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고, 이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무화과 이야기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저녁이 되자 그들은 성에서 나갔습니다. 아침에 지나가다가 무화과나무가 뿌리까지 시들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기억하여 그에게 말했습니다. 랍비님, 보십시오. 당신이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시들었습니다.

21절의 아이디어는 성전에 일어날 일, 무화과나무에 일어난 일이 그것이 해야 할 일을 생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 방향으로 보였지만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저주하시고,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이 그가 성전에 행한 일이라고 말씀하셨고, 성전에 저주를 선포하셨고, 그 활동을 중단하셨습니다.

무화과나무의 귀환은 예수님의 말씀이 참되었고 그의 심판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는 성전에 일어날 일을 예고한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는 성전이 파괴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기도의 맥락에서 이 성전이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22절을 주목하세요. 그리고 종종 22절에서 25절까지는 거의 덧붙인 생각으로 취급되고, 저는 그것이 덧붙인 생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을 믿으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에게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기도로 구하면 이미 받았다고 믿으라. 그러면 다 너희 것이 되리라.

기도할 때마다 누구를 원망하든 용서하라. 그러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시리라. 내가 이것을 흥미롭게 생각하는 이유는, 우선, 이 산이라는 개념이 여기 시온산이라는 맥락에 딱 맞기 때문에, 심지어 그 산 자체를 언급하고 던져 넣는 것일 수도 있고, 어쩌면 파괴라는 언어가 거기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사야 43:5에서 시온은 끊임없이 저항해 온 산이고, 그 움직임은 심판을 언급하는 것일 수도 있다.

스가랴 4:7, 큰 산은 성전이라는 맥락에서 낮게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더 속담적이더라도,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 에피소드는 기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기도할 때 무엇이든, 기도할 때마다 서 있을 때, 그래서 용서의 언어, 믿음의 언어는 기도입니다.

저는 성전이 민족을 위한 기도의 집이 되어야 한다고 선언되었지만, 대신 도둑과 강도, 즉 그들이 되어야 할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이 되었다는 느낌이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의 종말을 선언하셨지만 기도의 집이 되어야 했던 성전의 이유의 종말을 선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무화과나무가 더 이상 없다고 선언한 맥락에서, 그렇다면 기도는 어디에서 일어날 것인가라는 긴장감이 있습니다.

무화과나무가 성전이고 무화과나무가 더 이상 없다면, 신앙의 중심은 어디에 있을 것인가? 하나님과의 상호 작용의 중심은 어디에 있을 것인가?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교회에 암묵적으로 그것을 두셨습니다.

그들이 기도할 것이고, 그 기도가 계속될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당신이 알다시피,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암시된 것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덧붙인 말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무화과나무, 즉 성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더라도 기도는 계속된다는 흥미로운 확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가복음 11장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27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27절은 예수와 종교 지도자들 사이의 일곱 가지 갈등 이야기 시리즈를 시작할 것입니다.

2장과 3장과 매우 유사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 갈등 자체는 그렇게 새롭지 않지만, 이제는 예루살렘 지도부와의 갈등입니다. 이제는 성전과 관련된 것이고 회당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갈등은 다시 권위의 문제를 중심으로 전개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서기관들만이 아니라 산헤드린도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산헤드린은 유대 종교 통치의 중심에 있는 71명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럼, 처음 27명에서 33명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27장부터 12장까지는 이 일련의 갈등을 시작합니다. 저는 27장부터 33장까지 살펴보고 여기서 무대를 설정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예루살렘을 떠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가 성전을 거닐던 중에, 그는 이 모든 일이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아했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그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에게,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는 누가 당신에게 이런 일을 할 권한을 주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답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이런 일을 하는 권한이 무엇인지 말하겠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하늘에서 온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에게서 온 것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그리고 그들은 서로 그것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그는 왜 그를 믿지 않느냐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으로부터라고 말해야 합니까? 그들은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요한이 참으로 선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에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어떤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이것이 그의 재판 밖에서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다가오고, 산헤드린의 이런 그룹들이 예수에게 다가오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이제, 그들이 묻는 질문은 권한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마가가 늘 해오던 일의 무대를 마련하는데, 그것은 예수를 그의 힘의 문제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가 이 위대한 가르침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를 함정에 빠뜨렸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그가 어떤 권리로, 누구의 권위로 그것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합니다.

이런 종류의 토론에서 질문에 대한 반문이 나오는 것은 매우 일반적입니다. . 그러므로 예수께서 여기서 반문을 하시는 것은 이례적이거나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능숙한 토론자는 문제의 핵심을 짚어내기 위해 고안된 반문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는 요한에 대해 질문합니다. 요한의 세례는 하늘에서 온 것인가,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온 것인가? 그리고 이제, 물론, 그것은 종교 지도자들을 매우 어려운 입장에 놓이게 합니다. 그들은 세 가지 선택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패배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늘이나 사람으로부터 대답하는 것입니다. 둘 다 효과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하늘에서 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왔다고 말하는 것은 요한과 요한이 말한 모든 것을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가복음 1장의 첫 부분에서 요한이 예수가 더 강한 자라고 말했다는 것을 압니다. 예수는 오실 분입니다.

요한은 예수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과 예수 사이에는 강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자 요한의 참수 이야기를 기억하세요. 예수가 세례자 요한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을 때조차, 사람들은 내가 누구라고 하느냐?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세례자 요한이라고 말하는데, 이는 강력한 연결고리인 인식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요한을 긍정한다면, 그들은 암묵적으로 예수님을 긍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요한을 부인한다면, 그것은 그들에게 우려를 주는 것이지, 그들이 요한을 부인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글썄요, 우리는 세례자 요한이 한 말을 정말 좋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요한이 한 말을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을 선지자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한의 권위가 인간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말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의 세례는 단순히 인간적인 활동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군중을 두려워했습니다. 동기는 그들이 세례자 요한의 말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평가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군중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두려워해서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흥미롭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세례자 요한의 참수이든, 군중이 예수에 대해 여러 번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시 볼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에게서 그것을 봅니다. 심지어 어떤 제자들을 볼 때조차도, 그들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의 걱정이나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이야기합니다.

끊임없이 다른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대답을 취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모른다는 것입니다. 즉, 요한의 세례가 인간적인 것인지 신적인 것인지 모른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그것에 대해 모른다고 주장합니다.

아이러니한 점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하늘에서 온 것인지, 신에서 온 것인지, 인간에서 온 것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점인데, 그들은 모른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러면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들이 요한의 권한이 하늘에서 온 것이라고 말하기를 꺼린다면 예수께서도 자신의 권한이 무엇인지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요한을 이해하지 못하면 결코 나를 이해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균중조차도 요한에게서 알아차리는 것을 보고 싶어하지 않는다면, 내가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반응입니다. 그런 다음 1절에서 이 논쟁에서 계속되는 것을 주목하세요. 그는 그들에게 비유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것은 마가복음 4장 밖에서 유일하게 의미 있는 비유입니다. 비유는 본질적으로 이스라엘과 예수와의 상호 작용에 대한 이야기이며, 유대인과 예수와의 상호 작용에 대한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이야기, 이미지, 구약의 이미지, 농사에 대한 이야기로 전달됩니다.

우화를 읽기 전에, 염두에 두어야 할 한 가지는 이 시기에 부재 토지 소유권이 드문 개념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종종 감독자를 떠나 토지를 운영하는 부재 토지 소유자가 있었습니다. 부재 토지 소유자는 때때로 여기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문제 중 하나로 여겨졌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비유를 읽기 전에, 여기서 매우 강하게 나타나는 구약의 이미지는 이사야 5:1-2인데, 여기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포도원이라고 불립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그의 포도원에 대한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은 비옥한 언덕에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파고, 돌을 치우고, 선택한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는 거기에 망대를 세워 포도주 틀도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좋은 포도를 기대했지만, 나쁜 열매만 맺었습니다.

이사야서에서 나온 내용인데,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도원으로 묘사하셨지만, 나쁜 열매만 맺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살펴보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성서 이미지에는 부재지 소유의 관행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울타리를 치고, 포도주 틀을 위한 구덩이를 파고, 망대를 세웠습니다. 이사야가 거기서 얻은 모든 이미지를 주목하세요.

망대, 포도주 틀 등등. 그리고 그것을 소작인들에게 임대하고 다른 나라로 가서, 부재지 소유권을 얻었습니다. 계절이 되자 그는 소작인들에게 하인을 보내 포도원에서 과일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를 잡아서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다시 그는 다른 종을 그들에게 보냈고, 그들은 그의 머리를 때리고 그를 모욕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른 종을 보냈고, 그들은 그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많은 사람들과 함께, 어떤 사람들은 때리고, 어떤 사람들은 죽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 더 두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그를 그들에게 보내면서 그들이 내 아들을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소작인들은 서로에게 이르되, 이 사람은 상속자다. 와서 그를 죽이자. 그러면 상속 재산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그를 잡아 죽이고 포도원 밖으로 내쫓았다.

이제 포도원 주인은 어떻게 할까? 그는 와서 소작인들을 멸망시키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너희는 이 성경을 읽지 못하였느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잇돌이 되었느니라. 이는 주께서 행하신 일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일이다.

12절, 그들은 그를 잡으려 했지만,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가 자신들을 향해 비유를 말씀하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를 두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유의 목적을 이해했습니다.

거기에 없는 지주가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지주는 보통 이런 농업 우화에서 나쁜 사람이고, 소작농은 좋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여기서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하인들을 포도원의 열매를 보러 보냈고, 그들은 계속 죽이고 학대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아들을 보냅니다. 이제 다시, 이 모든 하인들이 어려움을 겪은 후에 아들을 보낼 것이라고는 현실에서 기대할 수 없는 우화입니다. 이 시점에서 보통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지주가 무장한 사람들을 보내서 소작농들을 죽이고 새로운 사람으로 대체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대신, 땅주인은 그의 아들,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냅니다.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마가 복음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지칭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세례 때, 변형 때,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또한 이삭을 아브라함의 사랑하는 아들로 표현한 이미지를 언어적으로 포착합니다. 다윗을 이스라엘의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아들로, 야곱을 사랑하는 아들로 표현합니다.

모든 언어가 포착됩니다. 그리고 그는 포도원의 권위를 가진 아들을 보냅니다. 기억하세요, 이 비유는 누구의 권위를 사용하여 이런 일을 하는지에 대한 질문의 일부였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가 풀어내는 것은 이 포도원에 와서 토지 소유자가 보낸 모든 사람을 거부해 온 아들입니다.

아들은 토지 소유자의 권위를 가지고 온다. 그래서 예수는 암묵적으로 질문에 답하고 있다. 비유의 형태로도 그는 자신을 포도원의 권위를 가지고 온 아들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사야의 비유가 보인다면, 그것은 파수대와 그 모든 것을 갖춘 포도원을 만든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술을 접하고, 물론 그들은 아들을 죽이고 포도원에서 쫓아냅니다. 포도원 주인은 어떻게 할까요? 글썄요, 그는 와서 소작인들을 멸망시키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입니다.

내 집은 민족을 위한 기도의 집이 되어야 했지만, 너희는 그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무화과의 저주 나는 이것이 같은 생각의 흐름을 이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파괴된 것이 포도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려라. 파괴된 것은 소작인이다.

포도원은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저는 그것이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매우 흥미로운 시편이 추가됩니다.

시편 118:22~23. 성경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잇돌이 되었느니라. 매우 이상하게 여겨지느니라.

사실, 이 시편은 초기 기독교의 주요 시편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종종 예수에 대한 유대인의 거부, 즉 거부의 문제에 대한 신약의 응답의 일부입니다. 이 우화는 이야기를 농업에서 건축으로 옮깁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전환을 했지만, 그 목적은 아들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포도원의 우화에서 아들이 죽임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토지 소유자인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하지만 시편이 하는 것은 아들이 의롭다고 증명되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것이 아들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인 방식입니다. 그것은 버린 아들이 모퉁잇돌이 되고, 성전의 종석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원 이미지에서, 말하자면, 우리가 여전히 작업하고 있는 이 새로운 사원에서요. 그리고 그들은 이것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제자가 아닙니다. 이 비유는 무슨 뜻입니까? 상황을 설명해 주세요. 그들은 비유가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전달되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자신들이 소작인이고, 초석을 거부한 자이며, 아들을 거부한 자이며, 포도원을 확대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합니까? 그들은 그를 떠나갔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예수에 대한 결정은 이제 끝났지만, 문제는 배경이에요. 물론, 결국에는 배경, 군중이 문제가 되지 않는 곳에 도달할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어받아 마가복음 12장을 다루면서 다음 시간에 계속할 것입니다.

이것은 마가복음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Mark Jennings 박사의 것입니다. 이것은 세션 18, 마가복음 11:12-12:12, 성전 저주, 무화과나무, 소작인입니다.